

폴란드 영화의 매력을 확인해 보시라



‘재와 다이아몬드’ ‘야간열차’ ‘스푸어’ ‘콜드 워’ 상영... 12~16일 광주극장

올해는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해다. 또 최근 2018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가 선정되면서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는 토카르추를 비롯해 다수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또 1950~60년대 유럽 영화계에 새로운 영화의 미학적 흐름을 형성한 영화적 유산이 풍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광주극장에서는 이러한 폴란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12일~16일)을 마련했다.

먼저 12일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5시30분에 ‘재와 다이아몬드’ (1958)가 상영된다. ‘폴란드 학

한 작품이다. 2차대전 직후 함께 독일 점령군과 싸우던 폴란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과 대립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재와 다이아몬드’는 19세기 폴란드의 낭만주의 시인인 노르비드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될지라도 가치는 영원히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재이 바이다와 함께 ‘폴란드 학파’를 이끈 감독으로 프로파간다 영화를 만들라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창작의 자유를 주장한 예르지 카발레로비치의 ‘야간열차’ (1959)는 14일 오후 7시40분, 15일 오후 7시20분 두차례 상영된다. 한정된 야간 기차 객실, 이곳에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낯선 승객들이 가득하고 이 중 한 명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설정이 영화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스푸어’ (2017)는 13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 ‘스푸어’는 체코와 폴란드 국경 근처 작은 산골마을에서 벌어진 밀렵꾼 살인 사건을 다룬 스릴러다. 은퇴한 여성 건축기사이며 채식주의자이자 점성술사인 주인공 주변에서 반복되는 살인 사건이 광활하고 거친 산세를 담아낸 영상과 어우러진다.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가 2009년 발표한 소설 ‘죽은 자의 뼈 위로 경운기를 몰아라’를 원작으로 했으며 2017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수상작으로 알려졌다.

‘콜드 워’ (2018)는 15일 오후 5시30분에 상영된다. 영화 ‘이다’ (2015)로 폴란드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파벨 파블리코브스키 감독의 작품이다. 차가운 냉전시대에 오직 사랑과 음악만이 전부였던 ‘줄라’와 ‘빅토르’의 러브스토리를 담았으며 제71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1 '재와 다이아몬드'
2 '스푸어'

파(Polish School)라 불리는 영화적 흐름을 이끈 감독 중 한 명인 안재이 바이다의 초기 대표작으로 1959년 베니스영화제 '국제영화비평가상'을 수상

박종섭 '가을산' 한국화 대상 '대한민국 한국화·서예·문인화 특장전'



한국화가 박종섭씨의 '가을산(사진)'이 '2019 대한민국 한국화·서예·문인화 특장전'에서 한국화 부문 대상(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문인화 부문에서는 최희정씨의 '파초와 포도'가 영예를 안았다.

4일 심사(심사위원장 차대영)를 진행한 공모에는 한국화 부문 266점을 비롯해 민화 130점, 문인화 214점, 한문·한글 서예 329점 등 총 939점이 출품됐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이지수(시선·한국화), 민병태(다나무·문인화), 박상숙(익제 시·서예)씨가 차지했다.

수상작 전시회는 2020년 1월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예총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전시 개막일인 3일 오후 4시 광주예총소극장에서 열린다.

'2019 대한민국 한국화·서예·문인화 특장전'은 31회를 이어온 '한국화 특장전'이 이름을 바꿔 진행된 공모전으로 기존의 한국화 위주에서 탈피, 서예와 문인화 부문을 신설해 의견을 확장했다. 잠재된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공모는 광주미협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한국화특장전 공모가 전일 집행부 비리 문제로 3년간 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비영리예술단체인 광주미술연대가 주최·주관하고 광주미협이 후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과 미술의 만남, 그 실험적 하모니 문화재단, 청년창작지원전... 10~28일 산수미술관



이인성 작 '다른손으로의 변신'

카프카의 '변신', 에밀 졸라 '목로주점', 조르주 페렉 '사물들'을 모티브로 한 미술 작품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카프카의 '변신'은 소외 문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걸작이다.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은 자연주의의 효시가 된 19세기 작품이며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은 유목의 삶과 시간을 탐색한 소설이다.

이번 전시는 서구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소재로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시도한 기획전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재단의 2019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청년예술인창작지원으로 진행되며 문학과 미술, 인문 담론과 시각 예술의 창작 행위와 매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양혜진은 '문학과 미술, 탐(AT-TACHMENT)'전을 기획하며 광주청년 독립큐레이터로 첫 발을 내디뎠다. 작가로는 이인성, 정승원, 최요한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선정된 문학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접하고 자신의 시대와 현실 상황을 작품에 반영했다.

이인성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의 방을 기존의 평면작업에서 벗어나 전시공간에 형상화한다. '변신'의 방 안에서 해충으로 변해가는 그레고르 잠자의 모습이 이인성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다.

정승원은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에 등장한 세타부 제르베즈의 벗어날 수 없는 우울한 상황을 표현한다. 현대사회 코인 빨라방에 온 사람들과 대비해, 줄

라가 세타부의 눈으로 바라본 하층민의 삶과 대조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요한은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과 연계한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인에게 큰 비중이 된 SNS를 인간의 탐욕, 욕망을 담은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탐'은 대상에 둘러싸여 떠나지 못하는 상태이며 '욕'은 하고자 하는 바람, 상태를 의미한다.

큐레이터 양혜진은 이번 전시에 비평가 양초롱(현대미술사 박사)과 함께 관람객 스스로 탐독하는 행위를 이끌어낸다. 큐레이터와 작가, 비평가를 매개로 문학과 미술을 가로지르는 탐독 행위는 이색적인 묘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오프닝 10일 오후 6시,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주현 윤정난 양준모

오페라로 만나는 80년 5월 광주시립오페라단 '박하사탕' 13일 문예회관

1980년 5월 18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오페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이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을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2000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한다. 작품은 5·18 당시 피해를 당한 광주시민이 아

닌, 그곳에 있던 한 군인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투영한다. 기차길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그는 군인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한 여성을 쫓으며 비극의 인생의 갈림길에 접어들게 된다.

연극과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광화가 대본을 집필했다. 작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근용이 맡았다.

이번 공연에는 독일 코부르크 극장에서 음악코치 및 지휘자를 역임한 정주현이 지휘봉을 잡고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 바리톤 양준모(연세대 교수), 소프라노 윤정난을 비롯해 소프라노 장유리·정수희, 메조소프라노 임지현·임선아·방신제, 바리톤 이하석·박성훈, 베이스 최공석 등이 출연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황정은 '디디의 우산'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이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가장 좋은 소설로 나타났다.

교보문고팻캣스트링만서점이 최근 발표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서 '디디의 우산'은 소설가 11명으로부터 선정을 받았다.

2위는 각각 9표를 얻은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과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뒤이어 편혜영 '소년이로', 권여선 '레몬'이 각각 7표를 받으며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김세희 '황구의 사랑'과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무엇이든 가능하다'가 각각 6표를 얻으며 4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가재가 노래하는 곳', 조해진 '단순한 진실', 예나 번스 '밀크맨', 김급희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윤이형 '작은마음동화회'가 각 5표를 얻으며 5위에 선정됐다.

남만서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출간한 소설을 대상으로 작가 100여명에게 좋아하는 소설을 최다 5권까지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설문에 응한 소설가는 모두 50명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entley Hotel featuring a night view of the hotel, a list of airlines (KBO, Korean Air, Asiana, t'way), and details about a year-end event. Text includes: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Bentley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예약문의 062)236-5881~2'.